

시멘트 · 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국토해양부가 상주~영천고속도로(연장 93.9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액 1조6,854억원, 보조 2,074억원, 보상 1,8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영천상주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3월 29일)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 구득난 심화

건설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봄철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등 건설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의 구득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LH현장에 투입되는 450mm 규격의 경우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으며, 400mm 규격도 적기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500~600mm 규격의 가용재고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PHC파일이 부족한 것은 인천 송도,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새만금 등 대규모 현장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륙의 아파트 건설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3월 27일)

KCL, 일본 건재시험센터와 상호교류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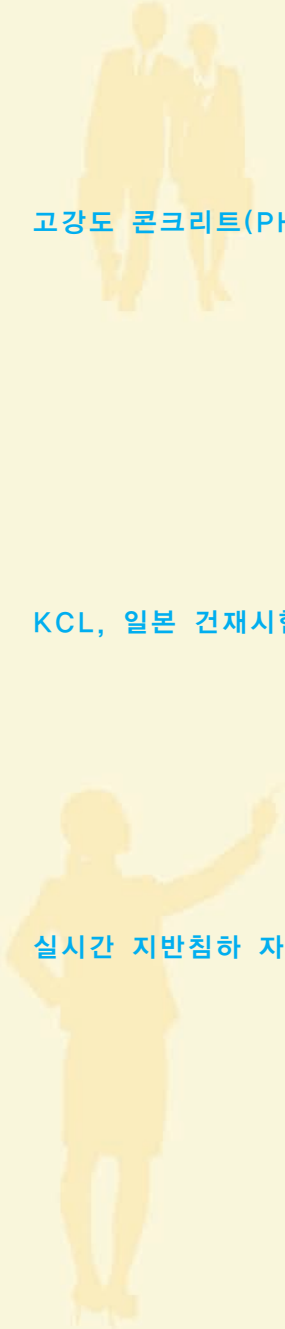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일본 건재시험센터와 MOU를 체결했다고 디지털타임스가 밝혔다. KCL은 3월 14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건재시험센터에서 송재빈 원장, 카즈히구로키 소장과 주요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본 MOU 체결을 통해 KCL과 일본건재시험센터는 △방화 내화시험, 건설재료, 열 환경 및 음 환경 등 건설환경 관련 시험에 대한 공동연구 △국제 표준 공동개발 △시험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시험분석 협력 △기술인력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월 15일)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등 5건 신기술 지정

국토해양부가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등 5건을 2월의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은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 자동계측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기준점이 없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 보(Beam)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 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 전단보강공법, 천연섬유가 혼합된 모르타르를 이용해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자동 그라우팅 시스템을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힘모멘트를 도입해 반침대 설치간격을 넓힌 흠막이 지지공법 등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3월 14일)



환경부,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환경부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월 11일)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레미콘공업협회장 취임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2월 23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어 정진학(鄭鎭學) 유진그룹 건설·소재부문 총괄사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한국건설신문이 보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한편 신임 정진학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을 거쳐 현재 유진그룹 건설·소재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2월 27일)

러시아 등 4개국 크라프트지 반덤핑관세 3년 연장

무역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제299차 위원회를 개최해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아시아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무역위원회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크라프트지는 주로 시멘트, 밀가루, 설탕, 사료, 양곡, 화학제품 등의 포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약 1,297억원 수준이다. (2월 23일)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 방안 수립

국토해양부가 일반국도 등에 실시한 시험포장 등을 통해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전국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아스팔트 제조 과정에서의 가열 온도를 약 30°C 이상 낮춘 130~140°C 온도 범위에서 생산된다.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과정 중 골재 가열을 위해 사용되는 약 2억2,000만㎏ 벙커-C유의 약 35%인 7,700만㎏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3만톤 저감(탄소배출권 44억원)시킬 수 있다. (2월 14일)